

요나 1:4 – 1:16

4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5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6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 요나가 탄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는 배, 그 지역을 순회하던 화물선일 가능성이 높다
- ()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 저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는 사람들
- 요나의 전략 - 같은 어원 단어들(“옴바로 내려가다” “ 배를 타다”, “배 밑창으로 내려가다”), 선지자에서 ()로 전략한 요나의 모습이 강조된다.
- ()과 요나가 대비되고 있다

7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보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8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오? 어느 나라 사람이오? 어떤 백성이오?" 9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오." 10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낚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11 바다에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의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12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의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 강풍의 원인을 알기 위해 ()를 뽑는데 요나가 걸린다. ()를 뽑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 성경의 예 - 민수기 26 장 55, 여호수아 18 장 6 절, 잠언 16 장 33 절
- 요나의 신분 - 하늘에 계신 주님, 바다와 땅을 만드신 분을 섬기는 사람.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
- 요나의 자세 - 선원들이 위기를 벗어나도록 죽을 수도 있는 자세. () 사람들을 구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과 대비.

13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에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14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빙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15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16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 배를 조종할 수가 없는 선원들 - 하나님께서 ()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심
- 14 절 선원들의 기도 - 당시 근동 지방의 사고방식을 반영. 주목할 변화는 5 절에서 각자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던 선원들이 모두 ()께 기도를 하고 있다
- 15 절 - 잔잔해진 바다.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신것을 깨닫는 선원들
- 16 절에 나오는 선원들의 변화 - ()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제물을 바쳐 ()을 섬길 것을 약속.